

# “정당 깃발만 꽃으면 아무나 당선돼서야” “정당없는 민주주의 안돼... 폐지보다 개선”

## 정당공천제 토론회...찬·반 팽팽

책임 정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광주YMCA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공천권이나 공천권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총성 등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폐해가 너무 크다”며 “정당정치가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회의원은 선거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군수의 임기 내내 예산 집행과 업무추진에 간섭, 국회의원이

지방정치를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이나 군수는 지역 국회의원의 잠재적 경쟁자라는 점에서 유능한 인재의 영입이 차단되는 등 정당공천의 지역기반마저 썩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조순대 강인호 교수도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기초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은 배제되는 추세다”며 “정당 깃발만 꽃으면 자질이 부족한 후보도 단체장에 당선되는 정치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정당 공천 배제에 동조했다.

반면 정당공천제 존속을 주장한 목포대 김영태 교수는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환상이거나 위선이다”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폐해가 있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당공천의 근원적 처방으로 완전상

향제 공천 실시, 지역정당의 존립을 위한 정당 구성요건의 완화, 다양한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연합 공천제 실시, 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 전면화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이춘훈 정책실장도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사안은 정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 정당의 관여는 필수적이다”며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중앙정치의 질서가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껍질만 하나 후보의 인품과 정책을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 검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자치회와 전남대 행정연구원 이 공동 주최하고 (사)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황주홍 강진군수,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장의 이별...피난 행렬...6·25 희귀 사진 공개

한국전쟁(6·25) 발발 59주년을 앞둔 23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에서 6·25 관련 희귀한 흑백사진 47점이 발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은 전장으로 떠나는 신병, 전황을 살피는 맥아더 장군, 피난민과 전쟁 고아 등으로 한국 전쟁과 민초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준다.



## 꼭 살아 돌아오라

국군 신병으로 입대해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을 전송하는 어머니의 모습. 한 바가지의 물로 아들의 안위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표정과 이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매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 “이란 사망자 100명 훨씬 넘어”

### 시위중 총격 사망 여성은 27세 여대생

“이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반발하는 시위에서 군과 경찰의 경정 진압으로 사망자가 100명이 훨씬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제외동포재단 주최로 23일부터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이란한인회 조승미(여) 회장은 “외신들의 출입을 막고, 언론통제를 해 현재 외부 세계로 전해지는 뉴스는 사실보다 축소돼 있으며, 실제로 희생된 사망자는 이란 당국의 발표보다는 훨씬 많다”고 말했다.

국영 프레스TV는 지난 13일 첫 시위 이후 사망자가 최소 19명인 것으로 보도했지만 CNN은 사망자가 150명에 달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이날 “은행을 불사르고, 자동차와 건



물을 파괴하는 등 피해도 엄청나다”며 “시위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시위에서 가슴에 총격을 입고 피를 흘리며 죽은 젊은 여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네다 살레히 아그하-솔탄(사진)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철학을 전공하는 27살 대학생으로, 지난 20일 교수 및 급우들과 시위에 참여했다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 美 워싱턴 지하철 추돌 9명 사망 70여명 부상

미국 워싱턴 D.C.에서 22일 오후 5시경(현지시간) 발생한 지하철 추돌사고의 사망자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DC 소방당국은 구조대원들이 22일 밤늦게 현장에서 3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지하철 사상 최악의 추돌사고인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워싱턴과 메릴랜드를 연결하는 레드라인 노선의 타코마 역과 포트 토튼 역 사이 지상구간에서 발생했다. 지하철 운행 관계자는 포트 토튼 역에 진입하기 위해 선로에 정차해 있던 열차를 뒤따르던 열차가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여기관사 지니스 맥밀란(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 거주)을 포함해 9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쳤다.



## 탱크 옆 빨래하는 아낙네들

파괴된 러시아제 T-34 탱크 옆에서 빨래하고 있는 아낙네들.



1·4후퇴 '남으로 남으로' 1·4 후퇴 당시 서울을 떠나 남으로 향하는 피난민의 행렬.



전선 시찰하는 맥아더 1950년 전장을 순시하고 있는 맥아더 사령관(맨 오른쪽).

## “北 강남호 미안마行 확실치 않아”

### 美 구축함 항로 추적중

미사일 혹은 해관련 물질 적재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선박 강남호는 현재 중국 상하이 남쪽 200마일 해상 운항중이며, 미 해군 구축함 존 매케인호의 추적을 계속 받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은 강남호가 어디로 향할지 미군이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군 정보당국 내에서는 강남호가 미안마로 향하고 있다는 가설(Working hypothesis)이 있으며, 말라카 해협을 거치고, 싱가포르에서 재급유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하지만 미군의 한 당국자는 이는 확

실한 것이 아니며, 단지 가설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AFP통신에 “그들이 미안(미안마)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아직까지 이 선박에 대한 검색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신은 미 국방 관계자들이 강남호에 대한 검색 실시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 아무런 시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따르면 강남호는 불법 화물 수송에 과거 연계됐던 선박들 중 하나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영화가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b>메가박스</b> 구.롯데아파트사거리 ♥에메1544-0600	<b>콜롬버스 시네마</b>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 뒷편)	<b>하미 시네마</b> 신대주점 하미시네마 ☎ 267-7777	<b>씨너스 전대</b> 북구보리소스 건너편 ☎ 511-1000	<b>제일 시네마</b> 출장소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최고급관 2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3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볼름 형제 사기단 (12세) 4관 신주쿠사건 (18세)/거북이 달린다(15세) 5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6관 마더 (18세)/거북이 달린다(15세) 7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8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9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1관 볼름 형제 사기단 (12세) 2관 블러드(18세)/드래그미투헬(15세)/퀵햄123(15세) 3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 (15세) 4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세) 5관 신주쿠사건 (18세) 6관 아스테릭스:미션 올림픽게임 (12세) 7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8관 마더 (18세) 9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10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1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2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3관 볼름 형제 사기단(12세)/천사와 악마(15세) 4관 퀵햄123 (15세) 5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6관 마더 (18세) 7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세) 8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9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L 10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 (15세)	1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2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15세)/마더(18세) 3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4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5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전세)/여고괴담5:동반자살(15세) 6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7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1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2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3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4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5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 (15세) 6관 신주쿠사건(18세)/박물관이 살아있다2(전세)
*이프유 추차할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저시 관람요금 부과	상무점 전관 좌석 교체!! 1588-7941 깨끗하고 편안한 좌석에서 영화의 감동을 느껴보세요!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5000원 넘는 주차료(3시간 무료) *305 매일 심야 *이동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북적 시무나(오전11시~오후11시)	*무료주차 3시간 (동구보리소스점 한정)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이동통신사 캐쉬백 혜택

영화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전세계 1등, 백만장자 직접 연출!  
그들 생애 최고의 원전이 벌어진다!

최대 액션! 역대 최고의 액션 영화!

영화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영화의 한계를 뛰어넘는다